

‘愛國主義 詩人 屈原’論에 관한 小考

宣 鈞 奎*

<目 次>

1. 序言
 2. 愛國主義 詩人論에 대한 檢討
 3. 屈原의 愛國主義 思想의 淵源
 4. 結論
-

1. 序 言

中國 詩歌史에 있어 屈原이 점하고 있는 비중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실존여부와 더불어 그의 사상이나 행위에 대해서 역사상 상당한 褒貶이 있었고, 아직도 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은 그의 사상적 정체성의 문제로, 역대로 많은 楚辭 주석가들이 屈原의 사상을 儒家, 法家, 道家, 陰陽家 등에 귀속시키기도 하였고, 심지어 先秦의 각종 사상이 혼합된 雜家에 속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 바로 그가 과연 애국주의 시인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屈原의 애국주의에 대한 논란의 원인은 우선 屈原에 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 일생동안의 구체적인 사적을 점검해 볼 수가 없다는데 있다.¹⁾

* 高麗大 中文科 副教授

- 1) 주지하다시피 屈原의 관한 자료는 司馬遷의 《史記 屈原賈生列傳》과 劉向의 《新序 節士》篇 외에는 남아 있지 않다. 이마저도 대단히 소략하고 간략하여 그의 구체적인 활동상황을 점검하기 어렵다. 이러한 傳記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屈原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기도 하고 또 그의 활동시대가 漢代로 낮추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주로 <離騷>와 <天問> 그리고 <九章> 등 屈原의 시편을 통하여 그의 사상 감정을 추적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러나 이것들은 자신의 논지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산문이 아니라, 모두가 감정의 기복을 풀어헤친 운문으로 된 서정시들이다.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詩言志說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屈原의 사적에 대한 기록이 극히 미미한 실정에서 그의 시편의 존재는 그의 사상과 정서를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록이다.

다음으로 春秋戰國 시대의 복잡한 시대상황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屈原이 활동하였던 戰國시대 말엽은 문자 그대로 중국사에 있어 대혼란, 대변혁의 시대이다. 때문에 戰國시대 당시 과연 '애국주의'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는가를 규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며, 흔히 百家爭鳴으로 표현하는 이 혼동의 시대를 살았던 한 개인의 사상과 감정, 특히 發憤抒情했던 한 시인의 사상적 맥락을 정확하게 지적해 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동일한 사람에 의한 屈原에 대한 평가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²⁾

한 역사인물의 가치관을 파악하는데는 당연히 시대적 보편가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屈原이 단순한 지식분자가 아니라 왕족으로서 정치일선에서 활동하였던 정치가이자 외교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楚나라의 특수한 역사경험과 그에 따른 문화적 배경 또한 그의 사상 감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개인의 특수한 경험과 독특한 인생경험에 대한 이해 역시 그 인간의 사상과 정서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屈原을 포함한 역사 인물의 애국주의 사상에 관한 논란은 단순히 오늘날의 시각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시대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변천에 대한 판단을 오늘의 관점으로만 그 기준을 삼는다면 자칫 그것은 刻舟求劍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戰國時代 당시의 애국주의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까? 우선 오늘날의 관점에서 애국주의를 단순히 사전적 정의로 말하자면 "자신의 나라에 대한 사랑과 헌신(love of and devotion to one's contry)"³⁾을 말한다. 그러나 이

2) 대표적으로 班固나 朱熹의 屈原에 대한 평가를 들 수 있다.

3) Oxford English Dictionary

는 거주민을 단순히 법률적 존재로 인정하였을 때만 가능한 말이다. 戰國時代가 封建專制의 왕조시대였음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거주민의 조국(ancestor’s state)’이라는 개념이 전제되어야 정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 아래서는, 한 민족은 씨족, 부족, 부족으로부터 점차 민족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대대손손 동일한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다. 이 지역은 그들에 의해 점거되며, 그들은 또 이 지역의 주인이 된다.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노예제 등의 사회제도가 생겨나게 되고, 이 사회제도를 유지시키는 기구로서 국가가 건립된다. 부족이 크든 적든 거기에 맞게 허다한 大小不同의 노예주나 봉건 전제정권 국가가 건립된다. 그리고 부족이 민족으로 발전해 갈때 분열할거던 국면이 통일된 국가에 의해 대체된다. 이렇게 되면 세대를 이어 전승되어온 거주지구가 바로 거주민의 ‘조국’이 된다⁴⁾

바로 이 조국의 영토와 그 곳에서 대대손손 혈통을 이어 살아온 동포를 사랑하며, 그 동포가 형성한 문명과 문화에 대한 자부과 긍지를 자감과 아울러,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열정과 헌신, 즉 외족의 압박과 침략에 굳건하게 대항하는 정신을 말한다.⁵⁾ 때문에 屈原의 애국주의 여부를 단순히 생각하면 屈原이 楚國을 조국으로 인식하여 그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였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조국’이란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개념으로, 애국주의의 사상과 감정 역시 역사의 발전에 따라 발전해 가는 것이며, 서로 다른 역사배경에서는 각기 다르게 표현된다.”⁶⁾ 戰國時代의 조국이란 개념에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영토와 주권 그리고 동포라는 요소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宗廟 社稷이라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절대개념과 그것을 대표하는 君主의 존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한다. 특정한 시대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애국주의 여부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4) 聶石樵, 《屈原論稿》(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82) pp.76-77

5) 그러나 역사적으로 애국주의는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란 미명으로 종종 다른 나라에 대한 증오가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의사에 상관없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 좋은 예이다.

6) 金開誠, 《屈原辭研究》(江蘇古籍出版社, 南京, 1992) p. 245

본고는 屈原의 작품 속에 나타난 각종 표현과 당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屈原의 애국주의 시인론에 대한 논란을 점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것이 애국주의라고 한다면 그 연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고찰함으로써 屈原의 시편을 이해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2. 애국주의 시인론에 대한 검토

漢代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중국에서 屈原을 ‘忠君愛國’의 화신으로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멀리는 漢代의 賈誼가 屈原을 애도하는 《弔屈原賦》를 지어 그가 다른 사람에게는 찾아 볼 수 없는 조국을 그리워하는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고,⁷⁾ 司馬遷 역시 마찬가지였다.⁸⁾ 심지어 屈原이 재주를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비판하였던⁹⁾ 班固 역시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충성의 마음을 가슴에 품었으나 어찌할 수 없어 離騷를 지었다”¹⁰⁾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南宋의 朱熹는 한 걸음 더 나아가 屈原이 “충군애국의 진정한 마음”¹¹⁾을 지녔다고 명확하게 지적하였다.¹²⁾ 또한 근대에 들어와

7) 西漢의 詞賦家인 賈誼는 長沙王 太傅로 편직됨에, 屈原에 대한 지극한 존경의 마음을 품고서 친히 汨羅江에 가서 屈原을 애도하며 《弔屈原賦》를 지었다. 한편으론 屈原을 한을 달래고 다른 한편으론 자신이 때를 만나지 못한 분노와 감개를 다음과 같이 펼쳐보이고 있는데 그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紛紛其離此尤兮, 亦夫子之故也。歷九州而想其君兮, 何必懷此都也? 鳳凰翔于千仞兮, 覽德輝而下之。見細德之險微兮, 遙增擊而去之。彼尋常之污瀆兮, 豈容吞舟之魚? 橫江湖之鱣鯨兮, 固將制乎蠖蟻蟻。

8) 司馬遷은 “屈原은 정도의 바른 길로 충성과 지혜를 다하여 군주를 섬겼다.(屈平正道直行, 竭忠盡智, 以事其君)” “屈原이 離騷를 지은 것은 원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믿었으나 의심받았고, 충성을 다했으나 비난받았으니 어찌 원망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屈平之作離騷, 盖自怨生矣。信而見疑, 忠而被謗, 能無怨乎?)” 등으로 屈原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屈原의 원망이 우국충정을 바탕으로 사회현실과의 투쟁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 正道, 忠, 信, 智 등의 어휘를 통해서 전통적인 애국열사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9) 班固가 屈原을 폄하하였던 것은 오로지 유가의 관점에서 楚辭를 형량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儒家的 經術에 맞지 않는 것은 법도의 정치가 아니며, 군자의 도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그리하여 屈原을 妙才라고 깎아 내린 것으로, 이는 정확한 평가라고 할 수가 없다. 黃中模 《屈原問題論爭史稿》(北京十月文藝出版社, 北京, 1987) p.223

10) 屈原以忠信見疑, 憂愁幽思而作離騷。(離騷贊序).

11) 原之爲人, 其志行雖或過于中庸而不可爲法, 然皆出于忠君愛國之誠心。(《楚辭集註·

서는 日本이 中國을 침략하였을 당시에 聞一多, 郭沫若 같은 대표적인 문화 학술계 인사들이 屈原을 '애국주의 시인', '人民의 시인'으로 널리 칭송함으로써 抗日救國의 정신을 고취하였다.¹³⁾

그러나 屈原의 사상이나 행위, 나아가 초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애국주의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역시 상당하였다. 대표적으로 曹大申은 《屈原的思想與藝術》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屈原의 애국주의 시인론을 부정하였다.¹⁴⁾

첫째, 先秦시대 당시 사람들의 의식중에는 중국과 외국의 대립된 구별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조국에 대한 열애”의 관념도 없었다. 先秦시대는 '중국'이라 부르지도 않았으며, 단지 '天下', '四海'라 불렀다. 당시 사람들은 천리 王畿로부터 먼 변방까지를 모두 중국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식은 《國語周語》, 《尚書》의 <益稷>, <禹貢>, <康誥> 등을 살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때문에 先秦시대 중국인들의 세계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국이 바로 세계요, 세계가 바로 중국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先秦의 모든 고적과 사람들의 사상 행동 속에 침투되었다. 中原의 華夏 각국뿐만 아니라 당시에 멸시되던 四夷도 이 점을 승인하였다. (《左傳 僖公 四年》의 기록을 보면) 당연히 초나라도 주왕실의 일부라는 관념이 분명하였고 초도 이를 승인하고 있었다. 제후국과의 투쟁은 단순한 약육강식에 의한 세력의 확대육이지 애국주의 사상에 의한 투쟁이 아니었다. 秦의 승상 李斯의 <過秦論>에 나타난 客卿이나 楚의 객경 등이 모두 이를 증명한다. 애국사상이란 타국에 상대한 관념이다. 조국에 대한 관념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애국사상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屈原의 사상 기초를 애국주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만약 屈原의 정치행동이 애국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당시 애국주의 사상의 지배아래 행동하였던 사람이 결코 屈原 한 사람만은 아니었을

序)

12) 屈原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西漢 말의 揚熊, 東漢의 班固, 南北朝 시대의 顏之推, 中唐의 시인 孟郊, 南宋의 朱熹, 그리고 明清 시대의 몇몇 주석가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사상적인 편견이나 개인적이거나 후 시대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屈原의 사상행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黃中模, 앞의 책, pp. 52-82

13) 聞一多, 《聞一多楚辭研究論著十種》(維雅書屋, 香港, 년도미상), pp.19-21

14) 줄저, 《굴원명전 : 장강을 떠도는 영혼》(신서원, 서울, 2000) pp.74-75 재인용.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사상이 당시의 저작에 반영되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先秦 고적에는 단지 忠君에 관해서만 논술되고 있을 뿐 애국에 대해서는 전혀 논술된 바가 없다. 《論語 八佾》에서 “군주는 신하를 예로써 대접하고, 신하는 군주를 충으로써 섬긴다.(君事臣以禮, 臣事君以忠)”고 한 孔子의 君臣關係에 관한 언급, 墨子の “군신이 서로 사랑하면 충이다.(君臣相愛則惠忠)”, 《呂氏春秋》의 “다른 사람의 신하 노릇을 하는 이가 충성하고 바르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爲人臣不忠貞罪也)”, 그리고 《詩經》의 도처에 충군사상은 존재하나 애국사상은 없다. 특히 《國語 晉語》에는 충군과 국토와 백성을 열애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기록도 있다.

셋째, 先秦시대 보통 평민이 어떤 나라에 살거나 떠나거나 혹은 머무르는 행동은 애국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다. 설사 屈原이 보통의 평민이었다 할지라도 죽어도 초국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결코 그가 애국사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많은 전적에 나타난 것을 보면, 民의 어떤 나라에 대한 거취는 완전히 그들 스스로의 이익이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 법률, 도덕, 사상의식의 속박과 제한을 받지 않았다.

넷째, 屈原이 초국의 일반 王臣이어서 죽어도 본국을 떠나지 않고 타국에서 벼슬하기를 원치 않았음을 가지고 그가 애국사상이 있다고는 증명할 수 없다. 孔子의 周遊天下, 孟子와 墨子の 여러 유세는 하나같이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가슴속에 주옥 같은 지혜와 재능을 지녔으므로 그 재능과 재주를 군주들에게 판매하고자 하였을 뿐이었다. 그 목적은 자신의 정치주장을 실현코자 하는 데 있었을 따름이다. 즉 자신의 정치주장이 모든 천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면 모든 천하에 추진되기를 바랐다. 오로지 자신을 신임해 주는 군주를 찾으면 그만이었지 이것이 자신의 부모의 나라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었다.

다섯째, 屈原의 정치행동이나 정치관점이 애국주의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이러한 관념과 의식이 그의 시편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屈原의 시편에는 단순히 실패와 성공의 원인이 개인적인 도덕률에만 한정되어 있다. 즉 도를 위배하다(違道), 제멋대로 방자하다(康誤), 욕망에 따라 행동하다(縱欲) 등은 실패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고, 도를 좇아 근신하다(遵道), 어진 자와 천거하고 능력 있는 자를 중용한다(舉賢授能)는 성공의 원인으로 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단

순히 義와 善이 그 행위의 표준일 따름이지 애국주의 사상에 입각한 역사적 경험이나 교훈은 전혀 없다.

屈原의 애국주의 시인론을 부정하는 이상의 견해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반박의 여지 또한 없는 것이 아니다. 이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先秦時代에 '祖國'이라는 어휘는 물론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후국 사이에 대립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周왕조의 천하는 근본적으로 중앙집권의 국가가 아니었고 될 수도 없었다. 그리고 각 제후국의 상황도 제각기 달랐다. 훗날 周왕조가 어쩔 수 없이 국가로 승인하기는 하였지만 楚는 원래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나라였다. 商代부터 지리적으로 中原과는 거리가 먼 남방에 위치했고, 또 정치적으로 자주독립의 국가였을 뿐 아니라 中原과는 적대의 관계여서 토벌의 대상이었다. 때문에 楚 武王 35년 이전에는 周왕조에 의해 승인되지도 않았고, 楚 또한 周왕조를 안중에 두지도 않았다. 그래서 熊通은 周왕조의 책봉을 기다리지도 않고 스스로 자신을 武王으로 칭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독립성은 楚國이 자신들의 역사를 독립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던 《櫛杌》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여실히 증명된다.¹⁵⁾ 만약 楚國이 中國과 대립된 개념이 없이, 中國의 일부로 간주되었다면 자신들의 독립된 역사책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독립된 역사를 기술하고 있었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확고한 주체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요, 직접적으로 '조국'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조국'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애국사상도 존재할 수 있는 일이다.¹⁶⁾

물론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자면 중국역사의 변천은 당연히 중국 경내에 거주하는 일반 백성이 주체이다. 때문에 王朝의 변천과 朝代의 흥망은 단순히 중국역사 발전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楚를 포함한 春秋戰國 시대의 모든

15) 《櫛杌》이라고 하는 이 괴상한 이름의 역사책은 지금은 실전되어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체제는 대략 孔子가 편찬한 魯國의 역사책인 《春秋》와 비슷하게, 東周列國의 대사를 楚나라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으로 짐작된다.

16) 魯의 역사서인 孔子의 《春秋》가 있지만, 이는 楚의 경우와는 다르다. 魯는 근본적으로 中國 즉 中原의 일부이자 문화의 핵심국이었다. 때문에 그 정치적 독립성이나 문화적 주체성은 초와는 비교될 수 없는 일이며, '조국'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은 중원국가에는 적용될 수 있는 일이다.

제후국은 큰 의미에서 중국 민족의 일원이 된다. 이런 경우 각 제후국의 ‘祖國’은 ‘中國’이 되고, 각 제후국 사이의 전쟁은 민족의 재융합을 위한 과도기적 혼란에 불과하게 되어, 제후국의 정체성은 인정되지 못한다.¹⁷⁾ 각 “제후국이 설사 독립된 주권과 영토 그리고 인민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民族分裂型’의 지방정권에 불과한 것”¹⁸⁾으로 인정하는 경우, 齊와 연맹을 맺어 秦의 천하통일 사업에 대항하였던 屈原의 행위는 역사발전을 저해한 것이 된다. 때문에 애초에 屈原의 행위는 논란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나 “西周 시대의 ‘天下’란 대단히 험령하고 느슨한 聯邦에 불과한 것이었고, 東周 시대에 들어서면 이나마도 이름만 존재하고 실재는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당시의 수많은 제후국들은 각자 법률·문자·역법·제도와 문물을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¹⁹⁾ 설사 봉건 제후국 중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楚는 엄연한 독립된 민족국가였다. 때문에 제후국 사이의 전쟁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그리고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대 국가의 전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屈原의 행위는 애국주의로 평가되어야 한다.

先秦시대에 애국주의 사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긍정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대한 독특한 애착과 연민을 가진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屈原 이전 바로 B.C 7세기 春秋시대에 살았던, 衛國의 許穆夫人이다. 그녀는 衛國의 영주인 衛懿公 姬赤의 딸로 許國의 영주에게 시집을 갔다. 이미 출가한 몸이지만 狄人에 의해 멸망의 위기에 처한 衛國과 그 난민을 齊에게 구원을 청하여 구제하였다. 그녀의 열렬한 애국적 정감과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 높은 애국주의 정신을 갖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바로 《詩經 鄘風 載馳》이다.²⁰⁾

17) 攝石樵, 앞의 책, p.77

18) 蔡清泉, 〈論屈原的愛國主義精神〉《屈原研究論集》(長江文藝出版社, 武漢, 1983) p.32

19) 鍾者, 앞의 책, p.76

20) 衛懿公은 鶴을 좋아하는게 괴벽이 되어서 수많은 鶴을 길렀다. 심지어 鶴을 정부 관리와 동등하게 대하여 녹봉을 주고 화려한 의복을 입혀 외출시에는 수레에 싣고 다녔다. 이러한 황당한 거동은 자연히 衛國 사람들의 반항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B.C 660년 狄人이 衛國을 공격했을 때,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온 衛人들은 전혀 狄軍에 대항하지 않았다. 백성의 지지를 잃어버린 衛懿公은 전쟁에 패하여 피살되었고 위국은 적인에 의해 점령되었다. 許穆夫人은 줄곧 조국의安危에 관심을 두었으나 조국이 멸망에 이르자 비통해 마지 않아 당시 제일 대국이었던 齊에 구

先秦의 저작중에 애국이나 애국주의의 명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先秦에 철학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당시의 철학을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先秦시대에 있어 애국문제의 논술은 늘 ‘고향에 대한 사랑’ ‘백성에 대한 동정’ 그리고 ‘군주에 대한 충성’으로 표현되었다. 당시의 ‘愛鄉’, ‘愛民’, ‘忠君’의 정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애국의 정서와 일치된 개념이었다. 소위 말하는 社稷과 宗廟는 충군의 구체적 표현이다. 즉 제후국이 서게 되면 가장 먼저 건립되는 것이 바로 사직과 종묘이다. 일단 나라가 망하면 종묘는 철거되고 사직 또한 옮겨진다.²¹⁾

이러한 宗廟와 社稷을 계승하고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君主였으며, 일사불란한 통치와 나라의 단결을 위해서는 먼저 필수적으로 군주라고 하는 지고무상의 지위를 강화해야 하였고, 신하는 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였다. 위험이 닥쳤을 때는 생명까지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군주가 있어야 나라가 흥신한다”는 ‘存君興國’ 그리고 “군주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思君念國’의 先秦 당시대의 사회 행위였다. 때문에 당시의 사회적 관념으로서는 군주에 대한 충성과 사직에 대한 충성을 특별히 애국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²²⁾

아울러 春秋時代 이후, 나라가 위기에 처한 시기에 자발적으로 救國의 증임을 자처한 사람에 대한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 許穆夫人의 예는 이미 언급했거니와, 춘추시대 齊와 魯 사이에 벌어진 長勺戰爭에서 曹劌는 평민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구국의 계책을 내놓아 나라를 구했다.²³⁾ 또 鄭의 商人인 弦高는 스스로 12 마리의 소를 잡아서 秦軍을 먹임으로써 秦軍이 스스로 물러가게 하여 鄭을 보존하였다.²⁴⁾ 그런가 하면 汪錡라고 하는 미성년의 童子가 자신의 나

원을 요청하였다. 齊는 그녀의 요청을 받아 들여 3천명을 파병하여 衛國의 난민을 보호하고 狄軍을 물리치고, 아울러 楚邱에 衛國을 위해 새로운 성을 건설하여 衛國을 회복시켰다. 詹安泰, 《屈原》(上海人民出版社, 上海, 1957) pp.1-2

21) 저서, 앞의 책, pp.77-78

22) 金開誠. 앞의 책, 251

23) 《左傳 莊公》 10년의 기록에 보면 평민인 曹劌가 주위의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고관대작들은 대부분 제 앞가림에만 급급하고 생각이 고루하여 원대하고 사려 깊은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肉食者鄙, 未能遠謀)”하여 자신이 자발적으로 적군을 물리칠 계책을 군주에게 헌상하여 마침내 나라를 구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24) 及滑, 鄭商人弦高將市于周, 遇之, 以乘韋先牛十二犒師. 曰“寡君聞吾子將步師出于敝邑, 敢犒從者. 不腆敝邑, 爲從子之淹, 居則具一日之稅, 行則備一夕之衛.” 且使遽告

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기록도 있다.²⁵⁾

이러한 예들은 先秦時代가 보편적으로 군주가 백성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있었어도 백성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의식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다고 단정하는 것이 반드시 정확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설사 비록 애국주의 사상이 보편적으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鄉土와 社稷을 수호하고자 하는 정서가 존재하였음은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충신이 있으면 간신이 있듯이, 애국의 정서도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는 문제이다. 屈原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春秋戰國 시대 상당수 책사들이 어떠한 개인적인 恩怨에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입신양명과 재물을 위한 이해득실에 따라 손쉽게 이합집산했음을 보여주는 많은 기록이 있음은 사실이다. 《戰國策 秦策三》은 이를 두고 “마치 뼈다귀를 던져주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개같이 책사들이 서로 다툰다”²⁶⁾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또한 “초나라의 인재를 진나라에서 등용한다는 ‘楚才晉用’이나, “아침에는 진나라에서 벼슬하고, 저녁에는 적국인 초나라에서 벼슬한다”는 ‘朝秦暮楚’란 말에서 보듯이 春秋戰國 시기 각국의 卿, 大夫, 士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관직을 맡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상황이었다.²⁷⁾ 국가관과 애국관이 확립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春秋戰國 시대는 사회적으로 격렬한 변동의 시대였다. 따라서 사회의식 역시 대단히 복잡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가치의식 경향이라던가 시비판단의 기준 역시 왕왕 다중적이었으며, 분리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해 내곤 하였다. 예를 들면 초나라 사람인 伍子胥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吳나라의 힘을 빌려 초나라를 공격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군주였

于鄭。鄭穆公使視客館，則束載，厲兵，秣馬矣。使皇武子辭焉，曰“吾子淹久于敝邑，唯是脯資餼牽竭矣。爲吾子之將行也，鄭之有原圃，猶秦之有具圃也。吾子取其麋鹿，以間敝邑，若何？”杞子奔齊，逢孫揚孫奔宋。盟明白，“鄭有備矣，不可冀也！攻之不克，圍之不繼，吾其還也。”(《左傳 僖公》33年)

25) 戰于郎，公叔馮人遇負杖入保者息，曰，“使之難兵也，任之難重也，君子不能爲謀也，士弗能死也不可！我則既言矣。”與其鄭重汪錡往，皆死焉。(《禮記 檀弓下》)

26) 以骨鬪狗 士相鬪

27) 이러한 예는 바로 孔子의 周遊天下가 가장 대표적이며, 孟子가 다음이라고 할 수 있다.

던 平王의 무덤을 파헤쳐 그의 시체에 300번이나 채찍질을 가한다. 당연히 나라에 대한 賣國이요, 군주에 대한 不忠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르다.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폭정을 일삼은 무도한 平王을 痛恨하고 멸족의 화를 입은 伍子胥의 불행을 동정함으로써 그가 초나라에 불충한 것을 회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屈原 역시 <悲回風>에서 “자서를 쫓아 마음의 안녕을 구하리(從子胥而自適)”라고 노래했다. 한 개인의 역사상의 행위를 단순히 한 가지의 인식과 관념으로 총괄하여 재단할 수 없다. 그것은 시대적 보편적 가치인식과 함께 개인적인 특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屈原은 오히려 이러한 개인적 특질이 시대적 보편성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春秋戰國 시대의 士라는 계층은 시대의 혼란과 함께 등장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펼치기 위해, 혹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명리를 위해 분분히 동분서주하였다. 孔子가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자그마치 70여 명의 군주 밑에서 벼슬을 하였다.²⁸⁾ 孟子 역시 孔子만은 못했지만, 鄒에서 齊로, 齊에서 梁, 梁에서 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거의 노상에서 지내다싶이 하였다. 默子, 鄒衍, 荀子 등등 모두가 마찬가지였다.²⁹⁾ 때문에 屈原이 楚國을 떠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그의 애국사상을 논할 수 없다. 그것은 어쩌면 ‘愚忠’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초국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군주에 대한 충성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데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정치적 이상은 바로 초국을 중심으로 하는 천하통일이었다.

楚國을 중심으로 하는 천하통일의 개연성은 劉向이 “連橫策이 성공하면 秦이 통일천하의 제왕이 될 것이요, 합종책이 성공하면 楚가 천하의 군왕이 될 것”³⁰⁾이라고 한 데서 분명해진다. 또한 연횡파의 주창자였던 張儀가 “무릇 천하의 강국으로는 秦이 아니면 楚고, 楚가 아니면 秦이어서 두 나라의 대립분쟁은 피할 수 없다.”³¹⁾라는 말에서도 그 정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당시 楚

28) 千七十餘君.(《史記 十二諸侯年表》)

29) 張仲良, 〈屈原爲什麼不出走〉《屈原研究論集》, 앞의 책, p.56

30) 橫則秦帝, 縱則楚王.(《戰國策敘錄》)

31) 凡天下強國, 非秦而楚, 非楚而秦, 兩國交爭, 其勢不兩立.

는 秦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자 천하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천하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나라를 부강시켜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강을 바로 세워야 했다. 屈原은 바로 <惜往日>에서 그에 대한 글은 각오를 피력하고 있다.

선왕의 공적 받들어 백성들을 비추었고,
 법도의 의심나는 부분을 밝혔노라.
 나라는 부강하여 법령이 확립되었고,
 바른 신하에게 국정을 맡겨 임금은 날로 즐겁네.

奉先功以照下兮，明法度之嫌疑。
 國富強而法立兮，屬貞臣而日嬉。

이러한 그의 개혁조치는 당연히 구귀족들과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갈등을 읊은 부분은 <離騷>의 도처에 나타난다.³²⁾ 아울러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백성들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했고, 그러한 그의 애민정신은 역으로 나라의 환난을 맞아 백성들을 동정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³³⁾

이 같은 예를 보면, “先秦 시대 孔子와 孟子와 같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팔기 위해 周遊한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屈原이 楚國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벼슬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그의 애국사상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정확한 관점은 아니다. 屈原의 정치적 이상과 백성에 대한 애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보편적인 시대가치만을 내세운 생각이다.

다음으로 屈原의 시편이 주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개인적인 도덕윤인 善과 義에 있음은 역설하고 있지만, 애국주의 사상에 입각한 역사적 경험이나 교훈에 대한 서술은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

32) “惟夫黨人之偷樂兮，路幽昧以險隘。”“衆皆競進以貪婪兮，憑不厭乎求索。羌內恕己以量人兮，各興心而嫉妬。” 등등이 그것이다.

33) “長太息以掩涕兮，哀民生之多艱。怨靈修之浩蕩兮，終不察夫民心。”(離騷) “憑搖起而橫奔兮，覽民尤以自績。”(抽思) “皇天之不純命兮，何百姓之震愆。民離散而相失兮，方仲春而東遷。”(哀郢)

을 것이다.

屈原의 사상경향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戰國 시대 유가적 혼도를 깊이 받았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유가적 사상체계의 출발점은 개인적인 인격수양 도덕율의 함양으로 '修身齊家治國平天下'란 말이 이를 대표한다. 때문에 <離> 등의 屈原의 시편에 善과 義를 핵심으로 하는 개인수양의 과정을 설명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³⁴⁾ 왜냐하면 인성의 함양과 정치 사회적 능력이나 업적이 하나의 덕목으로 간주되었던 유가적 사유체계에서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離騷>나 <天問>에는 帝高揚과 같은 전설상의 인물로부터 그 실체를 명확히 밝혀낼 수 없는 三后나 女嬃, 전설상의 성군의 대명사인 堯舜, 역사상의 실존인물인 甯戚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인물들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편중에서 상호 엄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³⁵⁾ 그 목적은 역대의 흥망성쇠를 열거함에 있어 正反 양면의 대비를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성공과 실패의 도리를 설명하는데 있다. 즉 기울어지는 국운을 우려하여 초왕이 전대 성군이 남기신 유업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특히 <天問>은 司馬遷이 그것을 읽고서 "그 뜻을 슬퍼하였다"³⁶⁾고 하였듯이 굴원의 개인적인 울분의 정서가 가득함과 아울러 商의 湯이나 周 武王의 도덕정치를 찬양하고, 몸을 던져 直諫하였던 比干과 梅伯을 칭송하며, 夏의 桀과 殷의 紂와 같은 폭군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역대 흥망성쇠의 역사경험을 의문의 형식을 빌려 노래하고 초나라의 현실상황에 대한 우려와 울분을 발산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의 행적을 통하여 屈原은 한 개인의 도덕율이 단순히 그 개인의 성공 실패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가 속한 나라의 흥망성쇠에까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屈原이 그의 시편에서 善과 義를 강조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 수양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개인적 수양을 통해 축적된 힘이 초국 부흥으로 집결되고, 군주를 충성을 다해 보필하여 마침내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룩

34) 離騷의 "朝搴阰之木蘭兮, 夕攬州之宿莽."이나 "朝飲木蘭之豔露兮, 夕餐秋菊之落英." 등이 바로 그것이다.

35) 文臺山, 《楚辭探韻》(松篁書屋印行, 발행년도 불명)

36) "悲其志"(《史記 屈原賈生列傳》)

하고자 하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에 대한 열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초국의 어리석은 군주는 그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때문에 그의 시편에는 자신의 변함없는 수양의 자세와 초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매한 임금을 원망하는 불만의 표현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다.³⁷⁾

이는 시인이 일생동안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楚의 부흥과 열국 중에서의 지위와 처지였음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離騷>에서 엿볼 수 있는 현실정치의 참여를 통한 강열한 정치투쟁의식도 모두 그의 이러한 목적을 반영하는 표현이다.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군주의 각성을 촉구하는 자신의 뜻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王逸이 <離騷>의 저작동기가 '諫君'에 있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이다.³⁸⁾ 그러나 그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임금은 그의 충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덧없는 세월만 흘러가 버린다.

내 아무리 급히 달려가도 쫓아갈 수 없나니,
 세월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까 두렵네.
 아침에는 언덕의 모란을 꺾고,
 저녁에는 강가 모래톱의 숙망을 캐네.
 세월은 덧없이 나는 듯이 흘러가고,
 봄과 가을이 차례를 바꾸는구나.
 초목 시들어 떨어지는 것 생각하니,
 님이 늙어 가실 게 두려워라.
 수련도 마다하고 용졸함도 버리지 아니 하시니,
 어찌하여 이런 태도 고치지 않으시는가?
 준마를 타고 어서 달리시옵소서,
 자! 제가 앞길을 인도하오리니.

汨余若將不及兮，恐年歲之不吾與。
 朝搴阰之木蘭兮，夕攬洲之宿莽。

37) “豈余身之憚殃兮，恐皇輿之敗績。指九天以爲正兮，夫唯靈修之故也。”(〈離騷〉) “所作忠而言之兮，指蒼天以爲正。思君而莫我忠兮，忽忘身之賤貧。思君而不貳兮，迷不知寵之門。”(〈惜誦〉)

38) 言己放逐別離，中心秋思，猶依道徑以風諫君也。故上述唐虞三后之制，下序桀紂羿醜之敗，冀君覺悟，反於正道而還己也。(《楚辭章句 離騷序》)

日月忽其不淹兮，春與秋其代序。
惟草木之零落兮，恐美人之遲暮。
不撫壯而棄穢兮，何不改乎此度也。
乘騏驎以馳騁兮，來吾導夫先路。

그러니 모든 것이 두렵다. 한편으론 세월이 흘러가 버려 나라 위해 공을 세우지 못할까 두렵고, 한편으론 초왕이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지 않아 정치개혁의 사업을 순조롭게 전개하지 못해 이로 말미암아 초국의 앞날에 누를 끼칠까 두렵다. 두렵다(恐)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함으로써 자신과 초국의 앞날에 대한 초조와 우려, 그리고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초국은 그가 예상했던 대로 패망의 길을 걸어간다. 그제야 그는 조국 초국을 떠나기 위해 길을 나선다. 그러나 결코 떠나지 못하고 스스로의 自盡의 길을 택하고 만다.

햇빛 찬란한 하늘로 올라가는데,
문득 고향이 내려다보이네.
시종들도 슬퍼하고 내 말도 그리운 듯,
머뭇머뭇 돌아다보며 나아가질 못하네.

.....

나라안에 나를 알아주는 이 없는데,
또 어찌 고국을 그리워하랴!
더불어 아름다운 정치를 논할 사람 없으니,
나 아제 땡함이 계신 곳으로 쫓아가리라.

陟陞皇之赫戲兮，忽臨睨夫舊鄉。
僕夫悲余馬懷兮，蟠局顧而不行。

.....

國無人兮莫我知兮，又何懷故都。
既莫足與爲美政兮，吾將從彭咸之所居。

군주가 堯舜禹湯과 같은 성군이 되도록 보위하여 楚國을 강대한 나라로 부흥시키고, 나아가 천하통일의 역사적 임무를 완성함으로써 자신의 鄉土를 수호함은 물론 동족인 백성들의 안위를 보위하는 정치, 바로 그 美政을 실현할 꿈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 美政에 대한 동경이 그로 하여금 끊임없는 도덕적

수양을 계속하게 한 근본이기도 하고, 君主에 대해 과도한 불만과 불평을 터뜨린 원인이기도 하다. 동시에 美政에 대한 절망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직접적인 동기이기도 하다. 또한 바로 이점이 屈原을 애국주의 시인으로 인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니, 屈原의 시편에도 그를 애국주의 시인으로 인정할 만한 표현이 충분히 실려 있다 할 것이다.

3. 屈原의 애국주의 사상의 연원

이상의 서술을 통해서 우리는 屈原이 당시대의 보편적 시대조류와는 다른 특정한 애국적 정서를 가지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의 이러한 특별한 정서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연원은 대략 중원의 여러 제후국과는 달리 초국이 특수한 역사환경을 가짐으로써 발생한 민족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楚는 수백 년에 걸쳐 가장 낙후하고 궁벽한 환경에서 투쟁을 통하여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中原 제후국들의 楚에 대한 멸시, 楚의 中原에 대한 투쟁 등 남북 사이에 전개되었던 이러한 첨예한 민족적 모순은 장구한 역사와 유래를 가지고 있었다. 《詩經》에는 “撻彼股武，奮發荊楚”(《商頌 股武》)과 “戎狄是膺，荊舒是懲”(《魯頌 閟宮》)의 기록이 있고, “周初의 銘文 기록 역시 周의 楚에 대한 많은 정벌의 기록이 있다.” 이러한 장기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초민족은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강인한 투쟁정신으로 마침내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周의 천자와 중원 제후들의 멸시와 천대는 여전하였다.³⁹⁾

楚의 백성들은 이러한 민족적 모욕과 멸시를 넘어서 결국 세세대대 초왕실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였다. 초국의 君臣과 士民이 모두 한 마음이었기에 밖으로 강적에 대항할 수 있었고, 안으로 부국을 이룰 수 있어 몇 백년의 간고한 분투노력 끝에 마침내 역사의 무대에 당당히 올라 서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춘추시기 楚 武王은 스스로를 蠻夷⁴⁰⁾라고 自號할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

39) 昔成王盟諸侯于岐陽，楚爲荊蠻，置茅絕，設望表，與鮮卑守燎，故不與盟。(《國語 晉語》)

40) 我蠻夷也，今諸侯皆爲叛相侵，或相殺，我有敵甲，浴以觀中國之政，請王室尊吾號。(《史記 楚世家》)

었다. 이러한 민족역사의 특수성과 현실적 위기로 인해 초는 건국부터 중원 제후들과 적대의 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독립자주, 자력갱생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⁴¹⁾ 때문에 강력한 제후국들 사이에서 완강하게 생존을 도모한 데서 형성된 이러한 민족정신 속에는, 다른 제후국과는 달리 유별나게 조상을 그리워하여 숭배하고 군주에게 충성하는 念祖, 忠君 의식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다.⁴²⁾

궁벽한 환경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제후국이 강대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조되었던 것은 단결심이었을 것이고, 이는 바로 상무정신과 조상숭배를 바탕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楚의 장수들은 전쟁에 실패하면 왕왕 자결함으로써 군왕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는 예가 허다하였다. 公子나 王孫이거나, 尹, 司馬 역시 목숨을 구걸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으니, 이는 각별한 충군의식의 발로로 보인다.⁴³⁾

초의 역사에서 애국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이러한 상충계층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懷王이 秦에서 사망하였을 당시 “楚가 단 세 집만 남는다 해도, 秦을 멸망시키는 것은 반드시 楚일 것이다(楚雖三戶, 亡秦必楚)”라는 말이 유행한 것이나, 또 기원전 272년 진이 초의 武郡과 黔中郡을 점령하자, 김중군의 백성들이 봉기하여 다시 수복한 것, 秦末 농민반란이 일어났을 때 주동자인 陳勝과 吳廣이 “楚를 장대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국호를 ‘張楚’라고 한 것, 그리고 項梁이 군사를 일으켜 楚 懷王의 손자인 心을 義帝로 옹립한 것 등은 초의 백성들이 자신이 나고 자란 국토와 그들의 군주, 그곳의 산천과 초목 그리고 풍토와 인정에 대해서 얼마나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41) 蔡靖泉, 앞의 책, p.33

42) 예를 들면 초나라 사람들은 선조가 흥성한 곳을 聖地로 삼고, 옛 거주지의 지명을 그대로 새로운 거주지의 지명으로 삼아 바꾸지 않았다. 즉 鬻熊은 초의 기업을 일군 조상으로 그가 거주했던 곳이 바로 丹陽이었다. 증손이 천도를 하였는데 천도한 거주지의 지명을 그대로 단양으로 명했다. 이후 서너 차례의 천도에도 여전히 지명은 단양이거나 郢都였다. 齊에서도 옛 지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는 있기 하였지만, 초와 같이 서너 차례에 걸쳐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는 초인들의 조상숭배가 그만큼 강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이다.

43) 《左傳 定公》4년의 기록에 보이는 斗辛의 경우가 한 예이다. 두신의 아버진을 죽인 평왕을 그의 아우인 斗懷가 죽이려 하자, 군주의 명령은 하늘의 의지라고 하면서 두신이 도리어 아우를 말리고 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초국 상하는 아주 자연스럽게 독특한 민족의식을 형성하였으며, 특히 屈原은 그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민족의식을 더욱 확고하게 가질 수 있었다. 司馬遷의 《史記 屈原賈生列傳》에 따르면 屈原은 초나라 귀족의 신분으로 초나라 왕실과 同姓 즉 公族이다. 봉건시대에 한 나라의 公族과 국가의 관계는 특별히 밀접하였다.⁴⁴⁾ 屈原이 초나라 왕실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빼어난 자질과 함께 출신성분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가 <離騷>의 서두에서 “帝高陽之苗裔兮，朕皇考曰伯庸”이라고 자신의 家系를 자랑스럽게 강조한 것도 자신의 출신성분의 비범함과 아울러 초국에 대한 자부과 긍지를 펼쳐 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屈原의 민족의식은 초국의 정치현실에 직면하여 초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걱정, 그리고 동족에 대한 지극한 동정과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離騷> 등 그의 시편 곳곳에 조국의 현실을 개탄하고 백성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또한 우매한 군주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분노와 불만을 표시하고, 소위 黨人들에 대해서 결코 화합할 수 없는 반감을 드러내는 것도 모두 이의 반증이다. 또한 民歌를 개작해 <九歌>를 제작한 것도 그의 동족에 대한 애정의 표시라고 할 것이다.

戰國 시대 각 제후국의 백성들은 본국의 정치현실과 열국에서의 처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개인의 이해와 운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⁴⁵⁾ 특히 屈原은 왕실과 동성이자 정치가이며 외교가였다.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이요, 당시대의 정치외교 현실, 무엇보다도 전쟁의 참혹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戰國 시대에 있어 전쟁에 패배한다는 것은 개인의 생명은 물론 민족 전체의 멸망에 이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春秋戰國 시기의 합병과 전쟁은 통일된 집단을 건립하려는 봉건국가들의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봉건 지주계급은 결국은 박탈계급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당시의 전쟁은 자연히 박탈성과 파괴성의 특징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예를 들면, 秦과 趙의 長平之戰에서 趙軍이 참패하여서 포로가 된 40여만의 병졸이 모두 秦의 장군 白起에 의해 생매장되었다. 훗날 秦의 병사들이 趙의 수

44) 屈氏は 초나라에서 대대로 莫敖라는 중요한 관직을 지냈다.

45) 金開誠, 앞의 책, p.246

도 邯鄲을 포위하자 “한단의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서로 자식을 바꾸어 삶아 먹어야 했다.”⁴⁶⁾ 그런가 하면 “백성들의 배가 갈라지고 얼굴이 깨지며 머리가 잘리어 두개골이 어지럽게 나뉘는 참경을 수백 년에 걸쳐 전국의 도처에서 볼 수 있었다. 다행히 살아 남는다 해도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면 부모형제가 생이별을 하여야 했고 죽은 귀신은 제사조차 받을 수 없었기에, 백성은 온전히 제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으며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방랑하다 타인의 노예가 되었다.”⁴⁷⁾ 또 전쟁에 패한 국가는 전승국에 조공을 바치고 출병을 하거나 군사비를 원조해야 했으니, 백성들은 더욱 더 무거운 부담을 감내해야만 했다.

때문에 이러한 특정한 역사환경 속에서 진정한 애국주의자라면 마땅히 현실을 직면하여 먼저 자신의 국가를 부강시키고 외국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했으며, 더 나아가 전중국의 통일을 모색하여야 함이 당연하였다. 屈原이 楚나라에 의한 천하통일에 집착하였던 이유도, 그리고 멸망해 가는 楚나라의 전도에 대해 그토록 우려하였던 까닭도 모두가 패전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동포들이 장차 겪어야 하는 고통과 질곡에 대한 동정과 연민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족 보호본능 또한 애국주의의 또다른 발로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4. 結 論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는 애국의 개념을 屈原에게 적용하여 그를 ‘애국주의 시인’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우환의식’ 내지 ‘동족에 대한 동정과 연민’ 그리고 ‘향토에 대한 사랑’ 그 자체를 애국의 척도로 인정한다면 屈原은 문자 그대로 ‘애국주의 시인’임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소명을 완성하기 위한 屈原의 노력과 헌신을 ‘애국주의’의 발로가 아닌, 단순한 개인적 정서의 표현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그다지 정확한 생각은

46) 邯鄲之民，炊骨易子而食(《史記，趙世家》)

47) 《戰國策 秦策四》

아니라고 본다.

물론 계급적 한계와 시대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屈原은 필연적으로 군왕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고 군왕의 통치권력을 의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의 투쟁은 인간적 투철함과 결백성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립적이고 필연적인 비극의 색채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비극적 요소는 屈原의 작품에 반영되어, 애원과 분개는 자주 보이거나 반항하는 성난 외침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屈原의 한계이자 시대의 한계이다. 우리가 屈原을 위대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를 일정한 역사적인 범위 안에 놓고 보았을 때, 그가 시대를 뛰어 넘어 '인간의 순결성과 정체성'을 구현하였기 때문이다.⁴⁸⁾

"진정으로 숭고하고 가치있는 애국의 마음은 조국에 대한 애정을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거대한 정신적 힘으로 상승시키는데 있다. 개인의 모든 지혜와 심혈을 자각적으로 공헌하는 것 뿐 아니라, 이해득실의 시련에 직면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쫓고 손해를 피하기 위해 조국에 대한 충심을 변하지 않는데 있다."⁴⁹⁾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屈原에게 '위대한 애국주의 시인'의 칭호를 부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48) 졸저, 앞의 책, p.86

49) 金開誠, 앞의 책, p.253

참고문헌

- 聞一多, 《聞一多楚辭研究論著十種》(維雅書屋, 香港, 출판년도미상)
詹安泰, 《屈原》(上海人民文學出版社, 上海, 1957)
劉維崇, 《屈原評傳》(中央文物供應社, 臺北, 1962)
攝石樵, 《屈原論稿》(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82)
文疊山, 《楚辭探韻》(松篁出版社, 알라스카, 1976)
湖北省社會科學院, 《屈原研究論集》(長江文藝出版社, 武漢, 1983)
黃中模, 《屈原問題論爭史稿》(北京十月文藝出版社, 北京, 1987)
陳怡良, 《屈原文學論集》(文津出版社, 臺北, 1992)
金開誠, 《屈原辭研究》(江蘇古籍出版社, 南京, 1992)
黃碧璉, 《屈原與楚文化研究》(文津出版社, 臺北, 1998)
拙 著, 《屈原評傳 : 장강을 떠도는 영혼》(신서원, 서울, 2000)